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리고 한국 경제

2014.05.26 | 정태인_새사연 원장 | ctain60@gmail.com

지난 5월 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아주 중요한 보고서,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를 펴냈다. 세계적으로도 이 표를 만들기 시작한 건 10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두 기관은 국민계정 통계의 최고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국민대차대조표”를 만들고 있다. 피케티의 자료 중 기능별 분배(자본 몫과 노동 몫의 분할) 역시 국민계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는 바로 피케티 지표들과 비교할 수 있다.

이번 자료에서 직접 나온 수치는 β 값¹⁾의 근사치이다. 한은과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²⁾은 1경 630조.6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인 1,377.5조원의 7.7배로 추계되었다고 밝혔다. 이 수치를 피케티의 비율로 바꾸려면, 1) 분자의 국민순자산에서 정부의 자산을 빼서 민간 순자산을 계산하고 2) 분모의 국내총생산을 실질국민총소득으로 바꾸면 된다. 현재 한은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부록과 한은 통계 데이터베이스)로는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추계가 가능하다. 그 결과가 <그림1>이다.

하지만 현재 한은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 민간과 정부의 금융순자산의 시계열은 최근 몇 년 밖에 찾을 수 없다. 민간의 금융순자산은 현실적으로 0에 가까울 것이고³⁾ 정부는 채권을 발행한 만큼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금융자산은 제외했다. 그러므로 금융자산까지 포함하게 되면 β 값은 아마도 <그림1>보다 조금 더 커질 것이다.

- 1) 한 나라의 순자산, 부를 1년치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
- 2) 국부
- 3) 외국에서 빌려온 돈을 제외하면 차입과 대출을 합하면 0일 것이다.



그림1. 한국의 β (=민간순자산/국민총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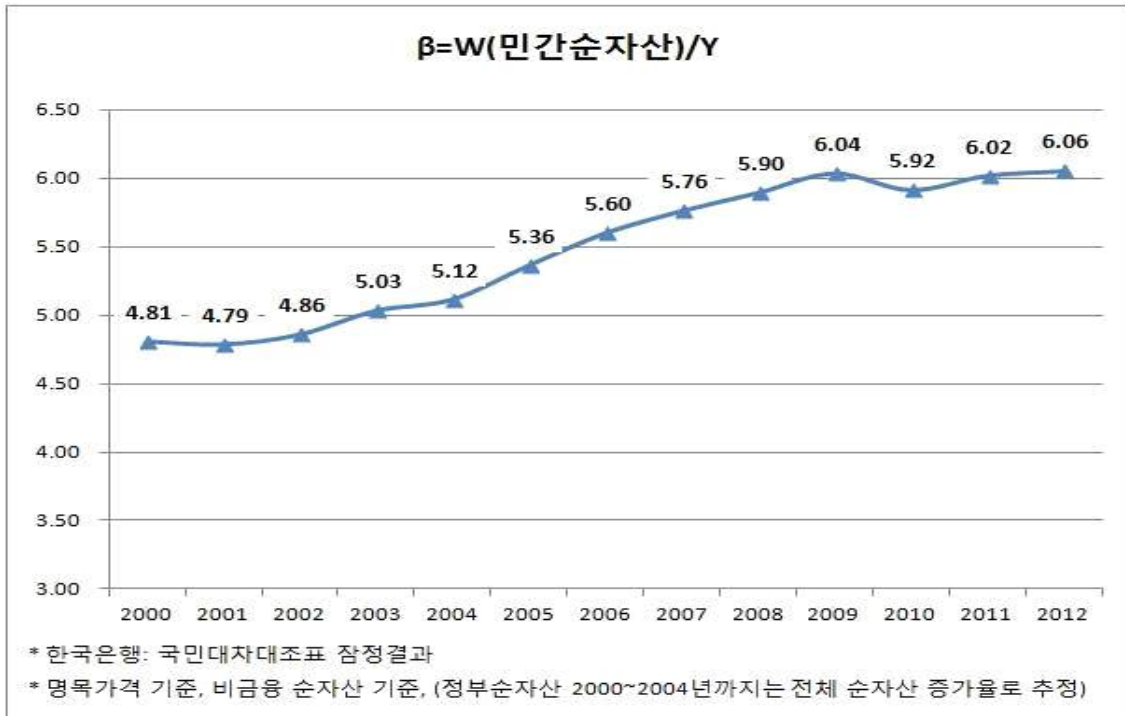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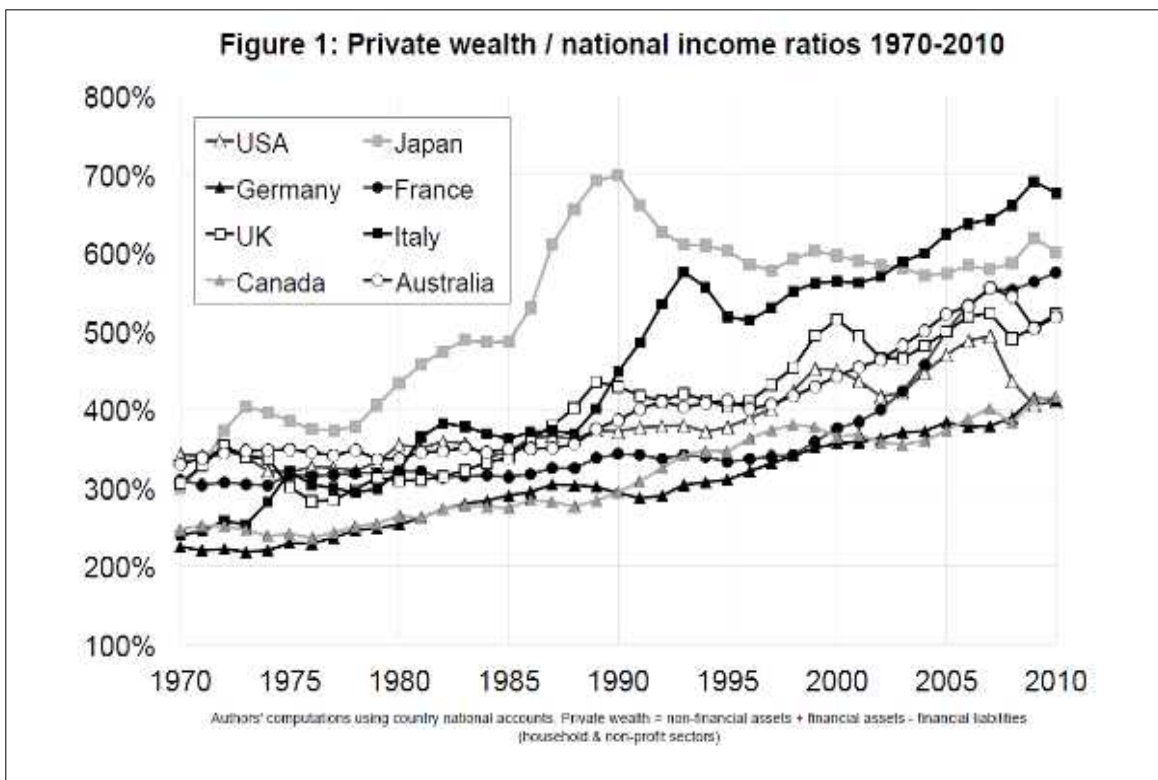


그림 2. 세계 각국의 β 값 추이



출처 : Piketty & Zucman, 2014, Capital is Back: Wealth-Income Ratios in Rich Countries 170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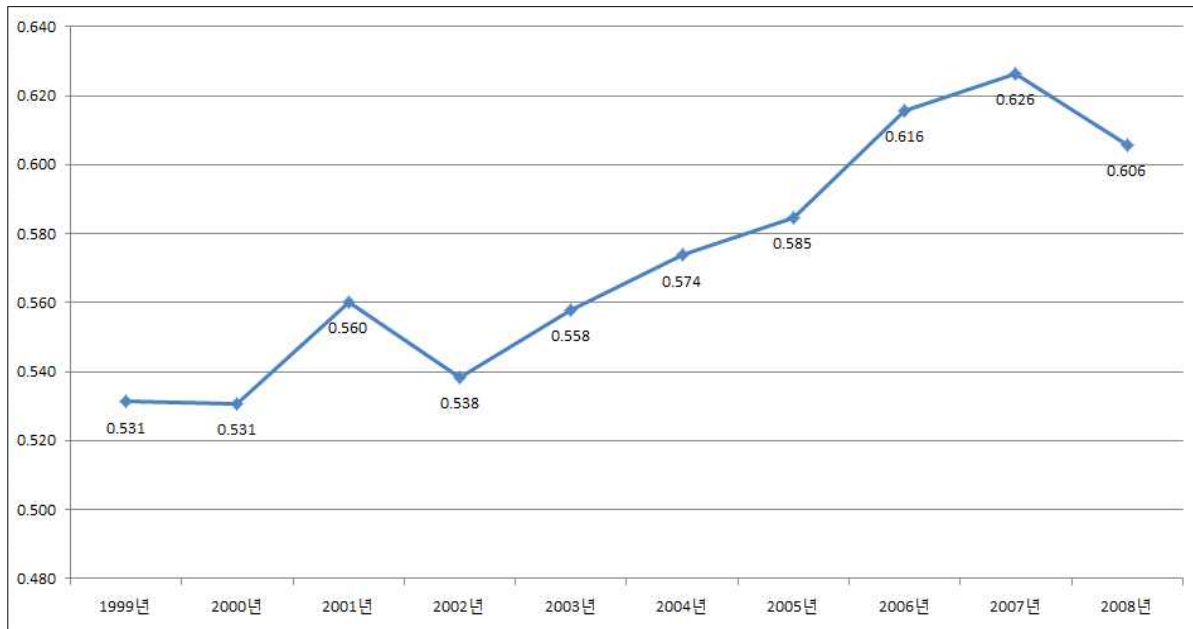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그림1〉과 〈그림2〉의 2000년 이후 각국의 β 값 추이를 비교해 보자. 한국의 수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4.81에서 6.06으로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다. 절대 수치로도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β 는 민간의 순자산을 한 해의 국민소득으로 나눈 수치이다. 당연히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부의 집적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이 수치 자체가 분배 상황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국민 모두 똑같은 양의 부동산과 생산자본,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에서 개인별 자산분배를 알 수 있는 통계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세금자료를 이용해서 개인별 자산분배 통계를 만들어낸 것은 피케티의 가장 큰 업적이라 할 만하다.

그림 3. 한국의 자산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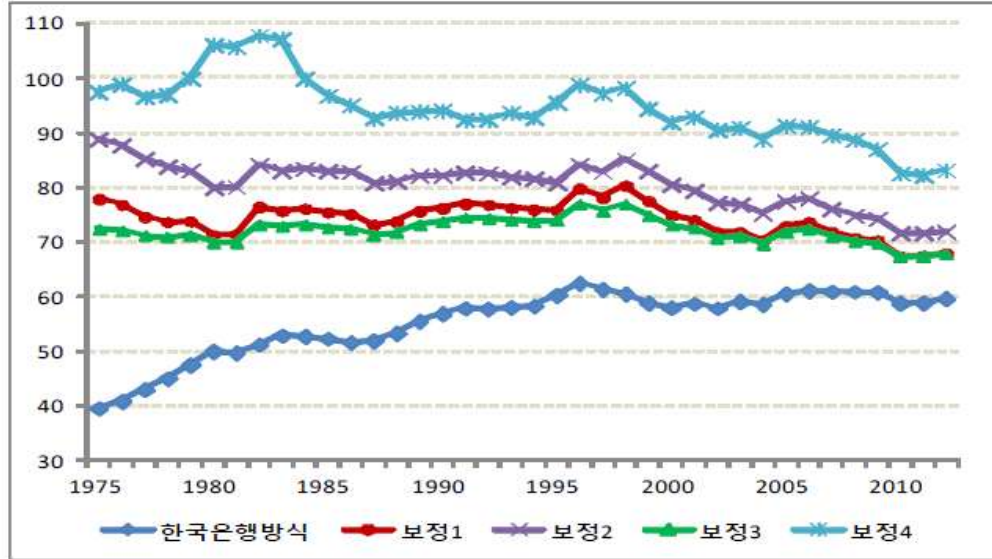
출처 : 새사연

해서 다른 방법으로 불평등을 측정해보았다. 한국 노동패널(가구) 2차~11차 자료를 이용해서 자산 지니계수를 구해 보면,⁴⁾ 우리나라의 자산 소유가 점점 더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β 는 19세기말 (유럽의 벨에이포크 시대, 미국의 도금시대)의 극심한 불평등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아이들은 “레미제라블” 상황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4) 〈그림3〉 참조.



그림 4.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출처 : 이병화, 홍민가, 이현주, 강신욱, 장지연, "경제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3, p53.

다음으로 국민총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은 한은의 통계에서 (1-노동소득분배율)에 해당한다. 한은 통계에서 노동 몫은 피용자보수/국민소득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자영업자의 잉여 중에 어느 정도나 피용자 보수에 포함시킬 건지, 국민소득은 어떤 수치로 할 건지가 논란이 된다. 공식 통계인 한은의 노동분배율(노동 몫)은 자영업자의 잉여를 피용자 보수에 넣지 않는다. 2000년 이후 한은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대체로 60% 수준(〈그림4〉)이니까 자본 몫은 40% 정도가 될 것이다.⁵⁾

한국은행 방식으로 α ⁶⁾를 구한 뒤 β 로 나누면 민간의 자산수익률 r 을 구할 수 있다.⁷⁾ 피케티는 해룻-도마-솔로우의 균형성장조건($\beta = s/g$)을 약간의 구구한 설명을 덧붙여 “자본주의 제2근본법칙”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r 이 g ⁸⁾보다 커진다면 분배는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r-g$ 가 피케티한테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적어도 선진국들도, 한국도 인구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g 가 점점 낮아질 거라는 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위에서 구한 r 과 g (한은 통계에서 실질국민총소득증가율을 택했다. 피케티의 책에 나온 선

5) 자영업자의 소득 중 2/3를 노동소득으로 간주하면 자본 몫은 약 30%이다. 〈그림4〉에서 보정3.

6) 1-노동소득분배율

7) $r = \alpha / \beta$, 피케티의 “자본주의 제1근본법칙”

8) 경제성장율



진국의 경제성장률 수치를 보면 실질성장률에 틀림없다. 하지만 왜 명목성장률을 쓰지 않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불평등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4년 5월 26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세계경제	1/15	지뢰밭 속 순항?	정태인
한국경제①	1/16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정태인
한국경제②	1/17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혜노믹스	여경훈
복지①	1/20	박근혜 정부식 보건의로, 민영화 폭탄	이은경
돌봄	1/21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이 되려면	최정은
주거	1/24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	강세진
노동	1/28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김수현
복지②	1/29	노인, 대학생,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종	이은경
노동	4/14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에 답 있다.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17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는 무엇인가?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21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 제안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주거	5/12	노인복지의 주요 이슈, 주거	강세진
한국경제	5/19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 그리고 한국 경제 ①	정태인
정치	5/22	민주주의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이은경
경제	5/26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 그리고 한국 경제 ②	정태인